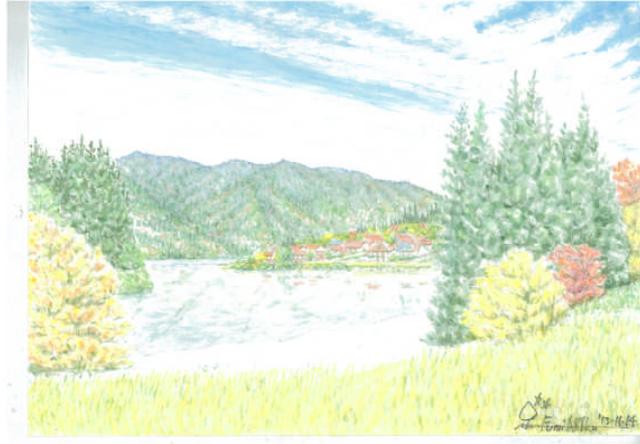


호시노재심 뉴스 201 후 2014 년 2 월 15 일발행



호시노(星野)씨가 그린 이번 달의 그림
『자연풍부한 후쿠시마(福島)·다다미강의 가을』



1 월 23 일 도지사후보 스즈키(鈴木) 타츠오(達夫)씨가 신주쿠(新宿) 역전에서 호소해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100 만명과 결합 도지사 선거를 싸운다

전쟁.개헌공격을 용서하지 않고 모든 증거개시에



호시노(星野) 아키코(暁子)씨가 스즈키(鈴木) 다쓰오(達夫) 후보의 응원 연설

토우쿄 (東京) 도지사 선거에 재심변호단장인 스즈키 타츠오 (鈴木 達夫) 씨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 ①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피폭시키지 않는다 ③빈곤.과로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 ④그래서 올림픽은 하지 않는다 ⑤탄압과 싸운다 라는 다섯 가지의 주요한 주장을 내세워 싸우고 100 만의 인민과의 결합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전국재심 연락회의도 스즈키 (鈴木) 변호단장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의 찬동변호사를 중심으로 77 명의 변호사가 스즈키 (鈴木) 후보 추천을 표명했습니다.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씨는 스즈키 (鈴木) 씨의 응원연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베 (安倍) 정권이 밀고 나가는 전쟁과 개헌공격 장시간의 노동과 과로사를 더욱 가속하게 하는 파견노동의 전면해제. 이것과 맞서 싸우는 스즈키 (鈴木) 씨의 호소는 나날이 노동자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대의 폐색감을 타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싸움은 2.9 시부야 (渋谷) 데모를 모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투쟁이 만들어낸 인민의 전투적인 행동의 궤기로 모든 증거개시.재심개시에 토우쿄 (東京) 고등재판소.고등검찰청을 확실하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1 월 18 일 작년 11 월의 「되찾는 모임.큐우슈 (九州)」 에 이어 전국에서 26 번째인

「이와테 (岩手) 호시노씨를 구하는 모임」 이 결성 되었습니다. 이와테 (岩手) 대학 명예교수이신 오카다 코우스케 (岡田 幸助) 씨를 중심으로 키타토우호쿠 (北東北) 3 현 (県) 에 퍼지는 모임이 시작된 것은 2014 년이 약진의 해였던 것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호시노투쟁은 「천만명의 분노로 아베 (安倍) 를 쓰러트리자!」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즈키 (鈴木) 씨가 도지사 선거에 나선 것도 결정적인 힘으로 백만명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운동을 향해 비약을 개시한 것입니다.

호시노씨에 대한 인권억압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는 극한 속에서 난방도 없고 탕파나 회로의 사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마저 무시한 인권침해는 더욱더 확대되어 연하장의 문장을 자유롭게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정월달에 면회 온 아키코씨가 면회실에 꽃다발을 가져가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부당한 공격도 350 통의 연하장에 나타나는 외부와의 단결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일어난 젊은이들과 연결되어 호시노씨는 점점 의기양양하며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에 전력을

작년 12월 25일 삼자협의에서 「사진원본」의 개시권고를 쟁취한 것은 중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증거개시」를 원하는 서명 이야말로 최대의 무기입니다. 증거는 검찰관의 독점물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무죄의 증거를 숨기고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39년간이나 옥에 가둬 자유를 빼앗는 검찰관의 부정의를 모든 인민의 힘으로 분쇄하자. 전국의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힘껏 서명을 호소하자. 2014년 변호단의 싸움과 하나로 모든 증거개시에 전력을 다하자.

1.18 「이와테 (岩手) 구하는 모임」 이 발족

이와테 호시노씨를 구하는 모임 오카다 코우스케 (岡田 幸助)



전열왼쪽에서 오카다(岡田) 사무국장, 후카자와(深澤) 회장, 뒷줄왼쪽에서 아키코(曉子)씨, 오카다(岡田) 회계

1 월 18 일에 「이와테 (岩手) 호시노씨를 구하는 모임」 이 발족되었습니다.

키타토우호쿠 (北東北) 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되었습니다

회장은 후카자와 히데오 (深澤 秀男) 씨 사무국장 오카다 (岡田) 회계 오카다 노부코 (岡田 信子)

그외에 임원 7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원은 임원을 포함해서 30명입니다. 특징은 회비를 정하지 않고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두하게된 계기는 그리스도교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北海道)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구하는 모임」의 나카무라 토쿠사부로 (中村 徳三郎) 씨로 부터 18년전에 일본 기독교단 츠키샨푸 (月寒) 교회 신자분의 아드님이 불잡혔으니 구원에 협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서명활동이나 달력 판매에 협력해 왔습니다.

작년 6월 「홋카이도 (北海道)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구하는 모임」의 총회에서 아키코씨에게 7월달에 「미야기 (宮城)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구하는 모임」의 아오야나기 요우코 (青柳 葉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해 8월달 내가 일본기독교단

오우우 (奥羽) 교구의 「교구와 국가」 세미나에서 성경공부로서 한시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를 받고 9월 21일

사회위원회에서 회화전의 실행이 승인되어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위원회 모두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회화전은 159명이 참가 99필의 서명 3만엔이 넘는 운영자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력과 「사랑과 혁명」도 많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목사님의 운동이나 공동대표의 타이라 오사무 (平良 修) 목사님의

「예수와 걷는 오키나와 (沖縄)」운동의 생각이 「이와테 (岩手) 호시노씨를 구하는 모임」의 뿌리에 있습니다.

배고플때 먹게 하고 목마를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게 목을 곳을 마련하고 알몸일때 입게 하고 병들었을때 문안을 가고 옥에 있을때 방문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미아키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 하루라도 빠른
재심.무죄를 쟁취해 석방을 받는 것을 기원합니다.

오키나와 (沖繩) .헤노코 (辺野古) 의 빛과 어둠
공동대표 타이라 오사무 (平良 修) 오키나와 목사



헤노코(辺野古) 매립 승인에 2000 명이

오키나와 현청점거

「후텐마 (普天間) 비행장의 헤노코 (辺野古) 이설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본토』에 있는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이 빠르다고 호소를 반복해온 것뿐이며 나는 헤노코 (辺野古) 이설에 반대한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노코 (辺野古) 매립 승인은 공약위반이 아니다」라며 나카이마 (仲井真) 오키나와 (沖繩) 현지사는 태도를 바꿨다. 일본정부의 오키나와 (沖繩) 의 기지 부담의 경감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약속. 헤노코 (辺野古) 이설에 대한 대가로 제시된 국고보조금등의 거대한 이득에 정신을 빼앗겨 아베 (安倍) 수상들 에게 듣기 거북한 최대한의 사례를 진술한 것도 모자라 「이제야 좋은 정월달을 맞이할 수 있다」며 자기만족의 극치인 나카이마 (仲井真) 지사. 오키나와 (沖繩) 현의회는 이에 맹반발. 지사에게 사임요구를 들이댔다. 그러나 지사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 하고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오키나와 (沖繩) 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나에게 있어서 오키나와 (沖繩) 의 마음이란 야마톤츄 (大和人 일본인) 이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지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마음의 버팀목으로서 존재했고 그러한 오키나와 (沖繩) 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나카이마 (仲井真) 지사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리고 헤노코 (辺野古) 매립을 승인했다.

나고 (名護) 시장 선거에서 오키나와 (沖繩) 의 분노

나고 (名護) 시장 선거는 나고에 집약된 「오키나와 (沖繩)」와 그것을 무화 시키려는 일본정부와의 정면대결 이었다. 그래서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결전이었다. 그리고 「오키나와 (沖繩)」는 이겼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가장 당사자인 헤노코 (辺野古) 를 지키는 나고 (名護) 시민의 민주적인 거절권을 밀어내고 강인하게 불도저를 투입하려는 결의를 재삼공표하고있다. 오키나와 (沖繩) 의 시골의 시장 따위에게 질까보냐 라는 것입니다.

「나고 (名護) 시의 민의 보다는 자민당 (自民党) 정권과 카스미가세키 (霞が関) 쪽이 민의로서는 크다」라고 허구를 말하는 방위청 (防衛省) 관료들도 나왔다. 정부는 건설 예정지의 매립 설계 환경조사등의 주주업자를 모집하는 입찰을 공개했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주인」인 미국정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주인」이 분노하지 않도록 현장 그자체인 나고(名護) 시의 민의를 무시한다. 즉 오키나와(沖繩)에는 민주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키나와(沖繩)에게 가장 어울리는 정치의 정상적인 길은 「국내 식민지」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정권의 방위대신을 맡은 모리모토 사토시(森本 敏) 씨가 발언한 말을 상기하자.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미군기지는 오키나와(沖繩)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키나와가 좋다」.

일본국은 오키나와(沖繩)를 「국내 식민지」로서 체질적으로도 구조적차별을 유효하게 행사할수있는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민의가 압도적으로 NO 라도 지금까지 격었던 정치수법을 더욱 효율 좋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헤노코(辺野古) 이설의 초안이었던 해상안은 긴세월의 세찬 저항에 의해 깨졌다.

그 대결행동에 대해 일본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해 얻어낸 법률은 공무집행방해 위력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서 대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의 이른바 연안안은 해상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반대행동에 제약이 걸린다. 연안은 해상 이상으로 규제가 엄한 장소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만으로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구역에 들어가는 것 만으로 체포당한다.

신기지 건설은 절대로 저지한다

해상안에서 현재의 연안안으로 변경했을 때의 오오노 요시노리(大野 功統) 방위청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득의만만한 표정을 보고 기분이 나빴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반대자가 방해하지 못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즉 형사특별법에 의해 완전히 지켜져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형사특별법에 의해 즉시 검거하는 체포망이 펼쳐진 저 캠프 슈왓의 건설지역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안된다면 어떻게 막는가! 기동대와의 유혈투쟁은 안봐도 뻔하다. 헤노코(辺野古) 텐트촌은 폭풍우전의 정적 가운데에 있다.

호시노씨가 자유인이었다면 어떻게 나올까!

토쿠시마 (徳島) 면회일기
올해 더욱더한 역사적 전진을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호시노(星野) 아키코(暁子)씨, 야마카와(山川) 히데유키(英之)씨

1월 7일. 첫날의 면회.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인사 했더니 후미야키는 「복 많이 받아. 이런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처음이네」라며 기뻐보였다. 이렇게 까지 기뻐해주니 내년에도 빨리 오자고 생각했다.

「추웠죠?」라고 말했더니 「올해 설날은 지금까지 없었던 정도로 지내기 좋았서. 올해는 인플루엔자 대책으로 이불에 발을 넣고 일어나 있어도 상관 없게 되어서 발을 넣어 몸을 녹히며 학습을 하는등 하고 있었다.

도시락이 나오고 떡국은 두번. 과자도 나오고 곶은 두번. 단것이 나오면 활력이 생긴다고 후미야키는 말했다.

NHK의 흥백가합전을 봤는데 「좋았던 것은 미와 아키히로 (美輪 明宏)가 나가사키 (長崎)의 노래를 부른것과 타카하시 마리코 (高橋 真梨子)의 『for you』 정도일까」라고 말했다.

보낼수 있는 연하장이 일곱장에서 열장으로 늘어났지만 문면을 건본대로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후미야키의 이야기로는 「같은 문면을 쓰게 해서 검열 없이 하고 싶은 것이겠지」라고 말했다.

「일부 형무소업무의 민영화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더니 「그래」라고 후미야키는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이 많은 가운데 일년에 한번인 인사조차 자유롭게 말을 고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가.

꽃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8일. 이틀째의 면회. 운전을 해주신 야마카와 (山川) 씨가 가져온 꽃다발을 보여줬다 「이것이 애기동백 이것은 납매 일본수선화 이것이 금감」이라고 설명하며 금감을 집어 먹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후미야키가 아닌 간수가 「먹을 것은 안된다고 대합실에 써있죠. 더이상 계속하면 면회를 금지시킵니다」라고 말했다. 나무열매도 안된다는 것이다.

올해의 연하장은 350 통정도 왔다고 말했다. 『사랑과 혁명』의 감상도 많아 격려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다니엘 멀린과 캐롤에게서도 왔다. 재팬타임즈에 게재된 호시노의 기사를 일본어로 읽고 「내용이 좋았다」며 아주 기뻐해 줬다. 삼자협약에서 재판관으로부터 검찰관에게 사진원본의 복사 개시권고가 내려진것도 「결정적으로 크다」며 기뻐해 줬다

올해를 어떤 일년으로 하고 싶은가를 물었다. 「작년은 예상을 넘는 전진을 쟁취한 한해였다. 올해는 더욱 큰 역사적 전진을 쟁취할 것이 틀림없다.

노동자 민중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아베 (安倍) 정권의 정체가 대중적으로 밝혀졌다. 3.11 이 있었던 상황에서 비밀보호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계속하는 운동은 처음이다. 이 지금까지 없었던 분노와 70년을 싸워 국철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를 지탱하는 것은 국철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노동운동이다. 여러가지 곤란을 교훈으로 승리해 나가는 싸움이 노동자 인민을 크게 움직이는 그런 해가 틀림없이 된다.

호시노의 운동도 그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증거개시를 쟁취해 가고 싶다」

9일. 삼일제의 면회. 금속탐지기 옆에 종이가 붙여져 있어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면회실에 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안된다고 접수처에서 들었다. 종이에 「동식물의 반입을 금한다」고 써있었다. 후미아키는 모든 수감자의 자그마한 낙을 뜯어가는 행위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이날은 후미아키가 그린 그림을 집에 가져가기 전에 그림을 보며 면회했다. 「잔뜩 웃는 아키코」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사가미하라 (相模原) 의 야에 (谷枝) 짱이 차입해준 그녀와 아키코의 투샷의 사진을 보며 저번달 면회했던 아키코를 떠올리며 그렸어. 내가 좋아하는 웃는 얼굴의 아키코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사랑과 혁명」에 대해 후미아키는 「사는 것마저 빼앗기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있어서 무기징역으로 옥중 39년 이라는 무시무시한 제약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단결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들이 만들어 온것은 힘이 된다.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전해진 감상은 후미아키에게도 원기를 부여해준다.

형무소의 대응은 운동의 전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반작용은 심했지만 후미아키와 운동의 전진과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반응도 확인 할 수 있었던 올해 첫면회 였다.